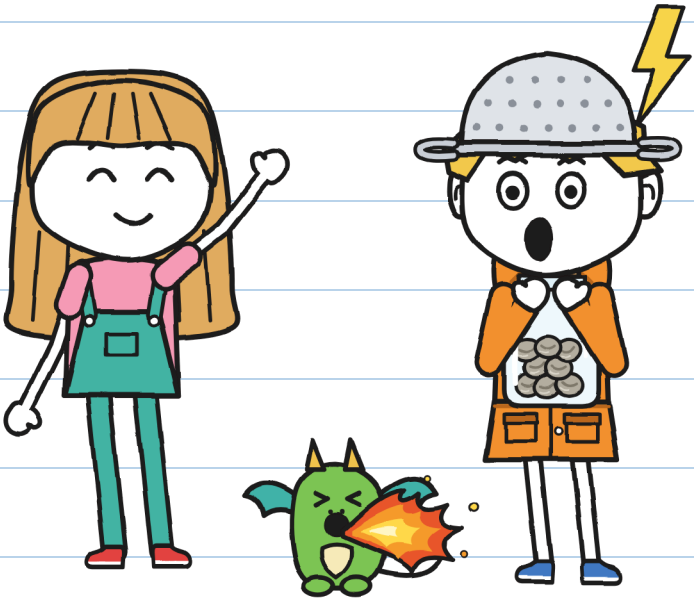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귀여운)

사이즈 XS
처음 읽기 · 5+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XS · 처음 읽기 · 5+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다친 천둥은 없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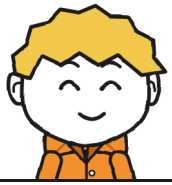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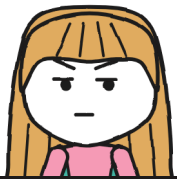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야기에서만. 넌 하지 마. —J.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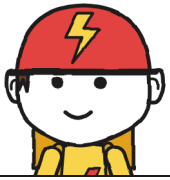
구니, 폭풍 사냥꾼.



훌리타. 초록색으로 쓴다.



부스러기, 아기 용.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플로라 아줌마, 정원사.



베라 아줌마, 용을 돌본다.



마라, 마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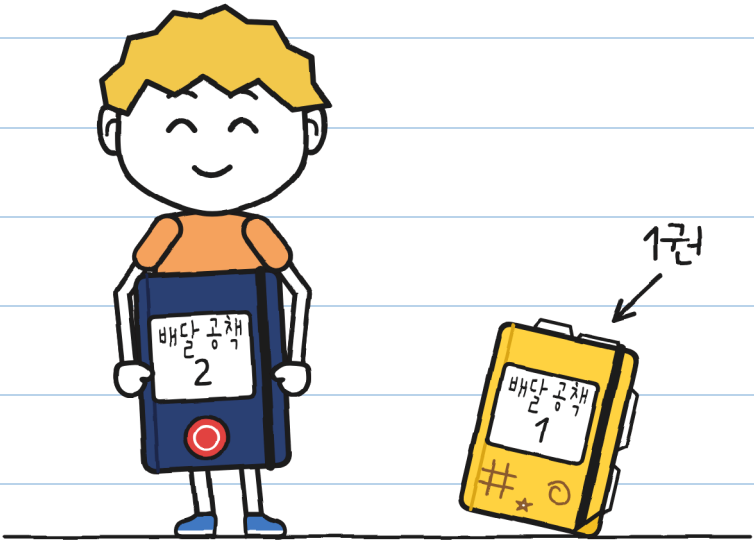


R.이 택배를 보낸다.

배달 공책 2
주인 : 구니

공식.

공식? 내가 먼저 읽는다. -J.



공책 1권은 끝났다. 마라아줌마가 이걸 줬다. 그림은 안된다고 한다.

제1장

폭풍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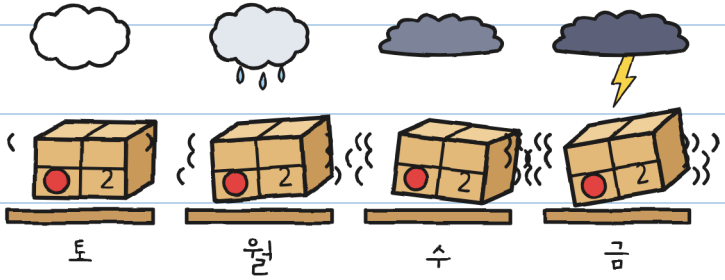
마라아줌마 가게에서 택배가 덜덜 떤다.

나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아기 용 부스러기는 나를 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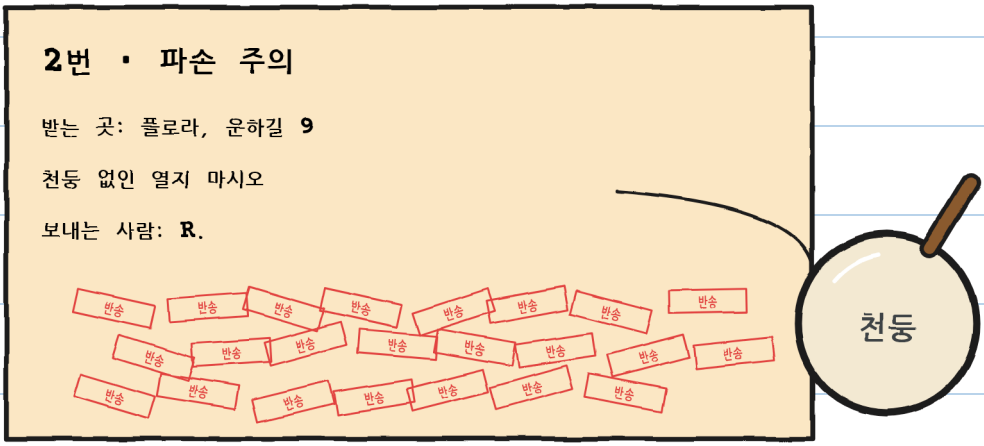
돌아온 택배가 열아홉 개 남았다.

떨림 계
(2번 택배)



토요일에 폭풍이 와. —J.

돌아온 택배를 받으면 서명해야
한다. 안하면 해 뜰 때 돌아간다.



2번 택배에는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었다.

두 번 세어 봤어. —J.

"스물세 번 배달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어."

마라 아줌마가 2번 택배를 들고
기다렸다. 토쇼도 있었다.
"이건 너희가 배달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훌리타가 아주 높이 뛰었다.

마라아줌마가 조건을 세 가지 걸었다.

1. 5시에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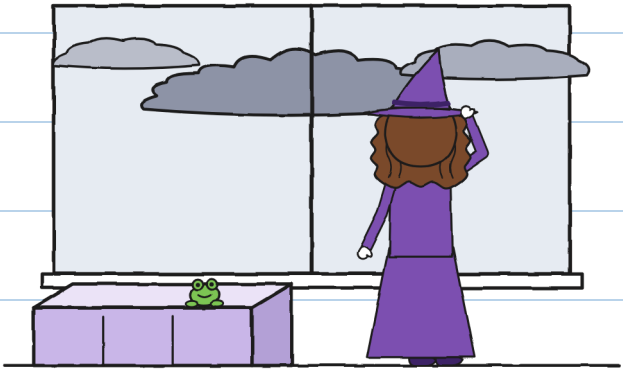
2. 가족에게는 알렸어.

3. 천둥이 치면 열어.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할 일이 있어."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회색 하늘을 보았다.



무슨 일? -J.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폭풍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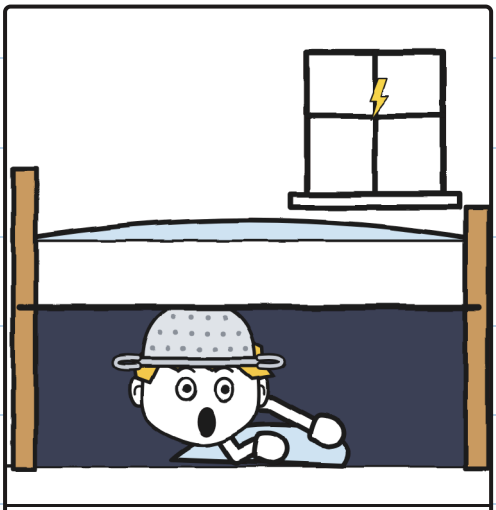
나는 뻔한 말을 했다:

"엄청 좋아해. 다른 동네에서는

폭풍 사냥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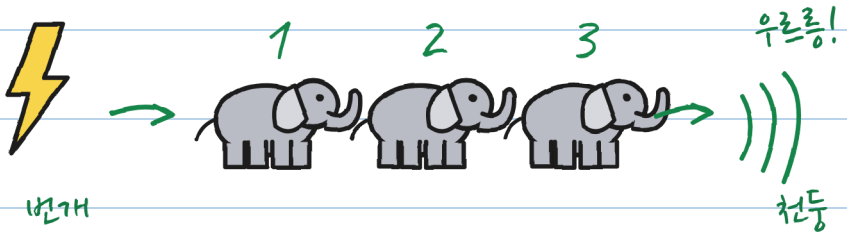
내가 한 말



진짜 일

침대 밑 사냥꾼. —J.

훌리타가 폭풍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1마리 = 1초

코끼리 3마리 = 1킬로미터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 천둥이 택배를 열어.
먼 천둥은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더 멀다.

천둥소리: 안전한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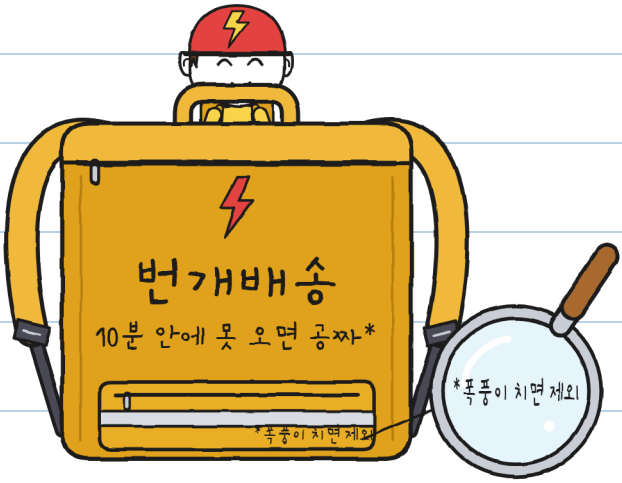
알면 덜 무서워. -J.

나는 필요 없었다. 그래도 적어 두었다.

토뇨가 작은 글씨를 읽었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아직은 아니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도 같이 갔다.

5시에 나는 집에 갔다.

"넌 천둥 칠 때..." 엄마가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

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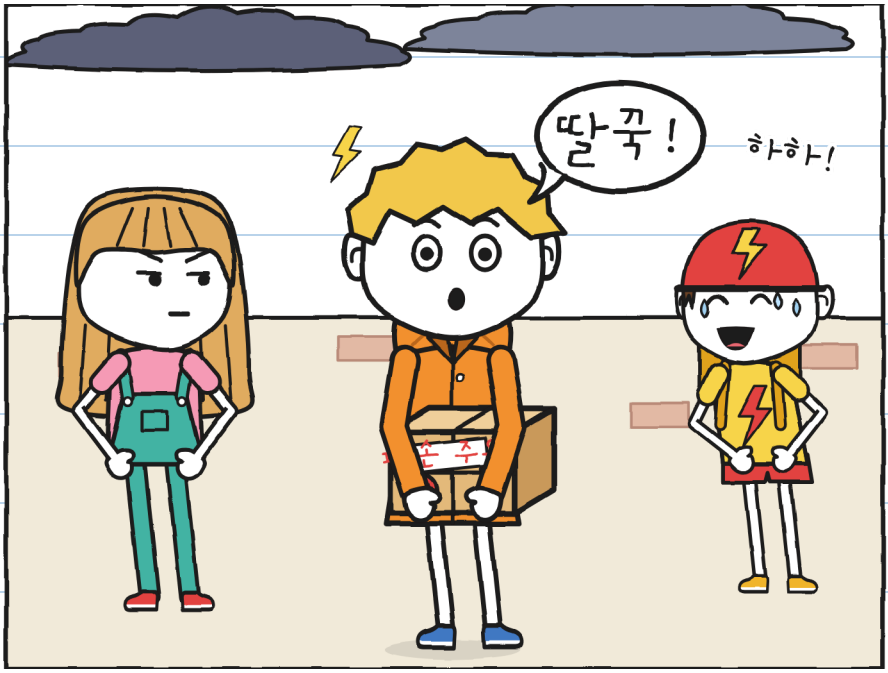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훌리타는
물에게 아주 진지하게 손을 흔들었다.



훌리타는 코끼리를 서른
마리 셌다. 우르릉.
"이제 열어?" 토뇨가 말했다.

"저건 택배를 여는 천둥이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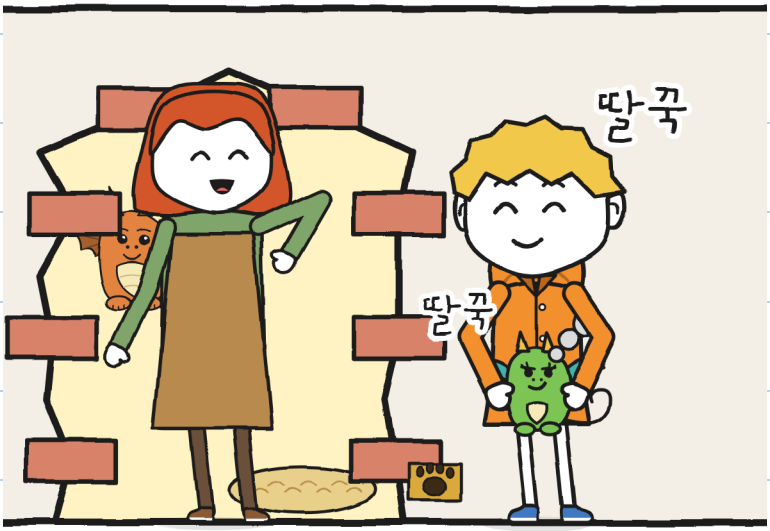
천둥이 칠 때마다 딸꾹질이 난다. 무서운 게 아니다.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베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안고 기다렸다.

"구니, 부스러기는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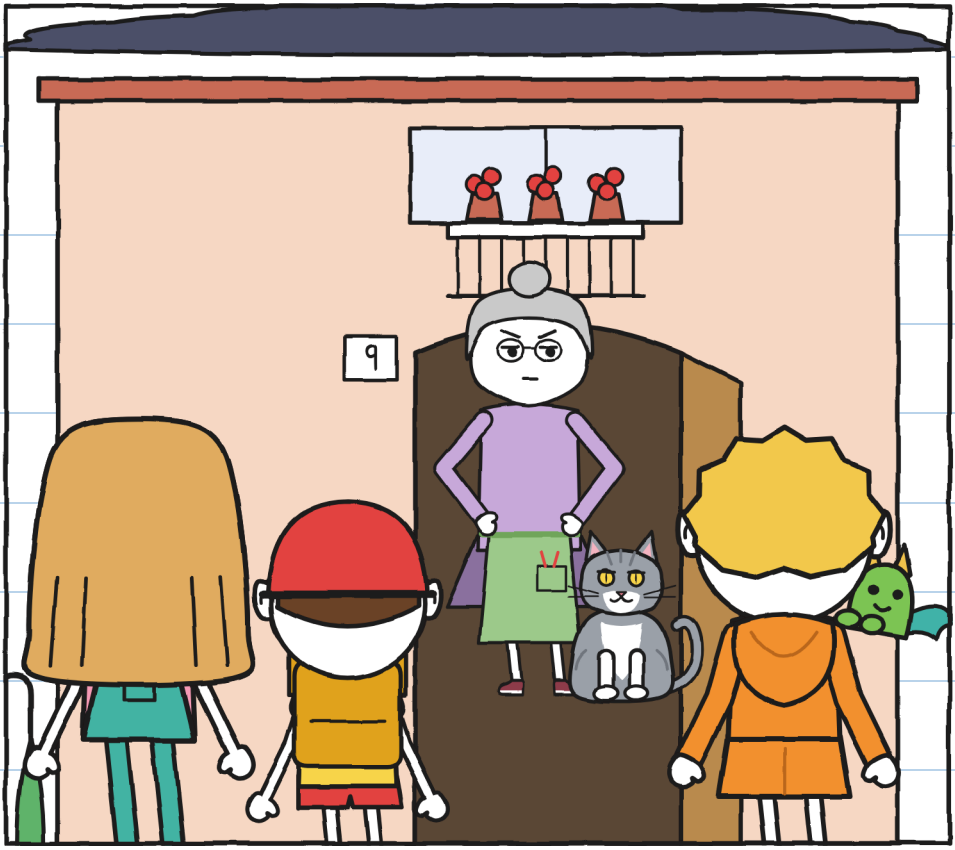
천둥이 쳤다. 나도 딸꾹질을

했고 부스러기도 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플로라 아줌마가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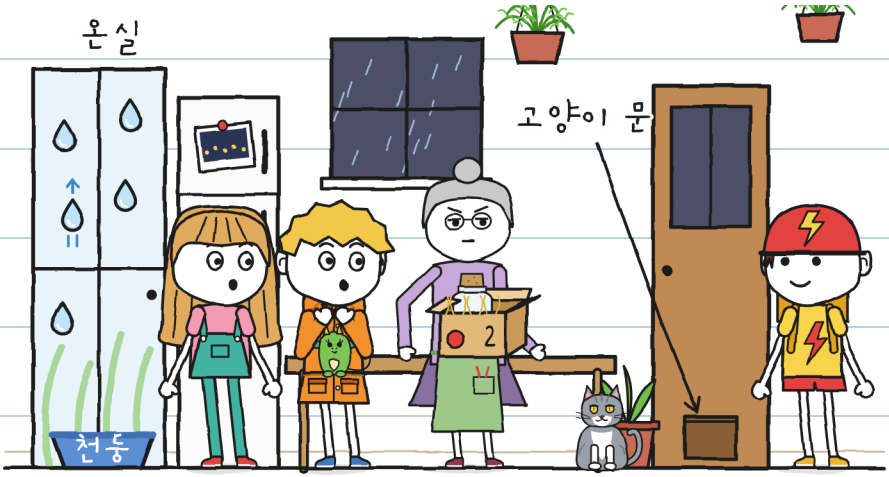
"들어오렴." 아줌마가 말했다.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제2장

천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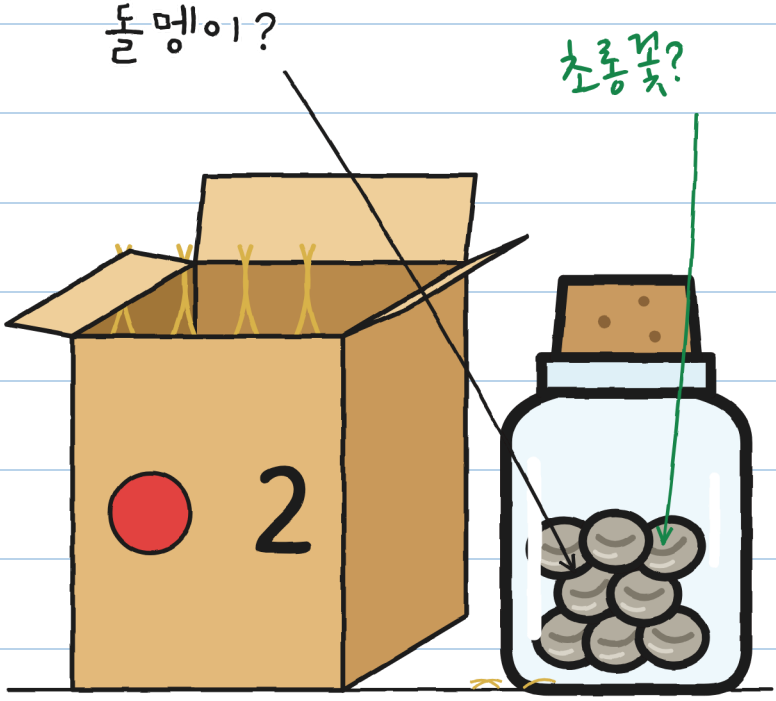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네 부엌은 식물로 가득하다. 토요는 자전거를 들여놓았다.



유리에 빗방울이 그려져 있었다.

"R.이 만든 유리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비는 들어오게 해 주지."

플로라 아줌마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
"R.은 초롱꽃을 약속하고 돌멩이를
보내."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초롱꽃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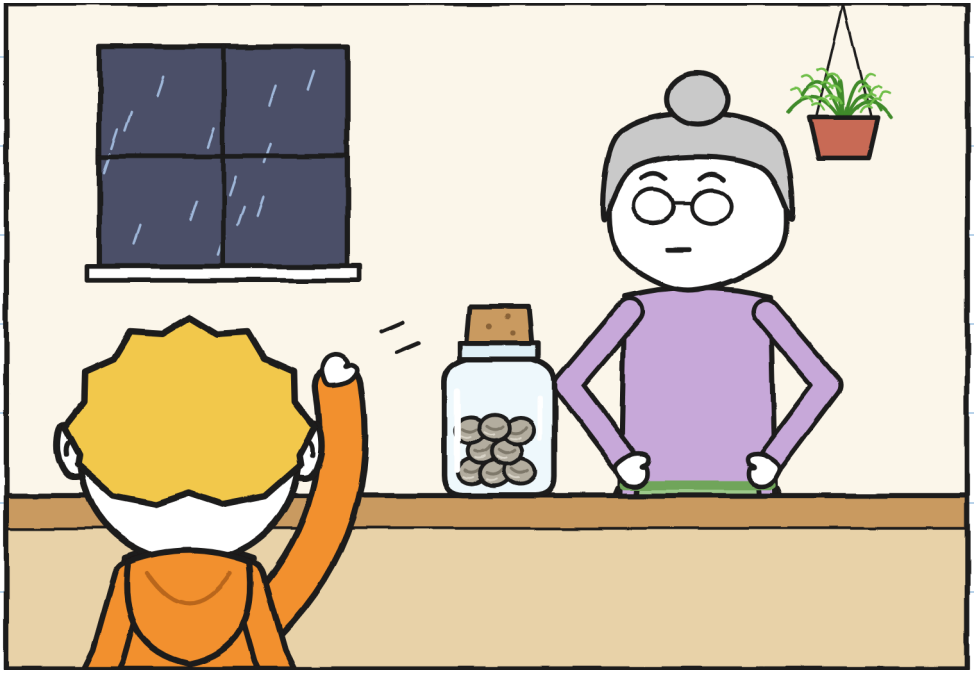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가 운하의
낡은 사진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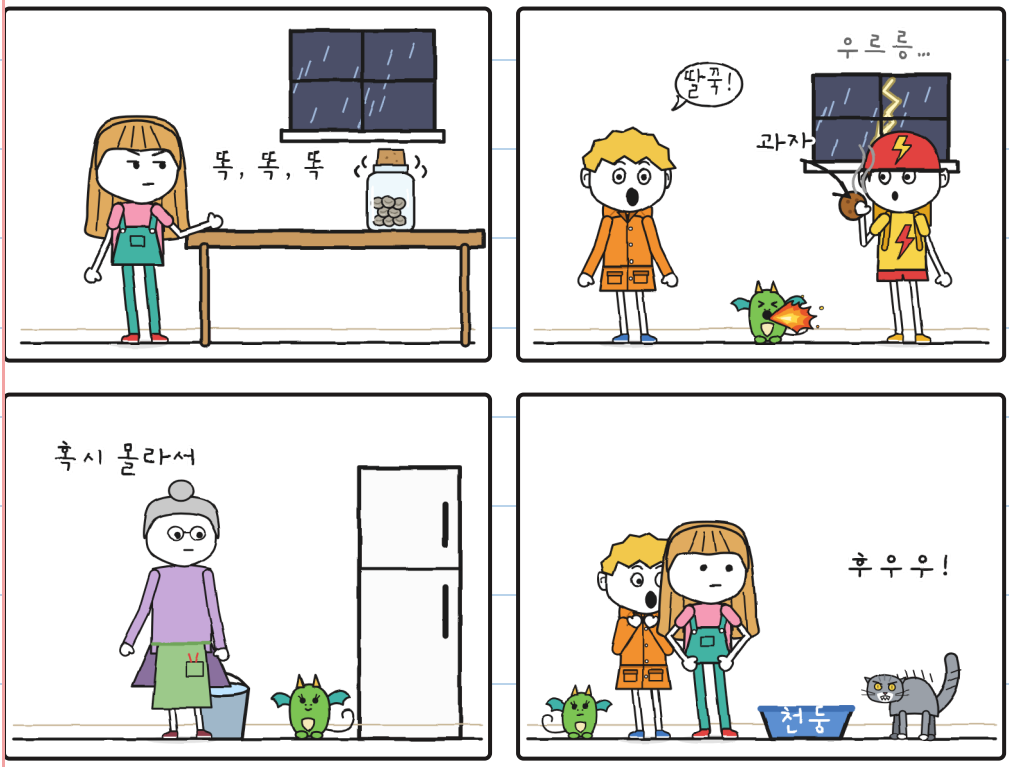
"번개의 빛이 있는 식물이란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R.은 더 이상 안 와."
그래서 운하가 어둡다.

널다리는 무서워. —J.

"R.은 약속을 지켜."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스물세 번 다 돌멩이였어."
"천둥을 기다린 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았다.
"난 누구도 안 기다려."
아줌마가 말했다. "천둥이라도."



플로라아줌마의 고양이 이름은
천둥이다. 구름처럼 회색이다.
우리는 부엌에서 폭풍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J.

병이 달그락, 달그락. 훌리타가 셌다.

'코끼리 열두 마리.' 그다음엔 '아홉 마리.'

부스러기가 작은 불꽃을 내뿜었다.

천둥이 쏜살같이 달아났다.

"천둥아아아!"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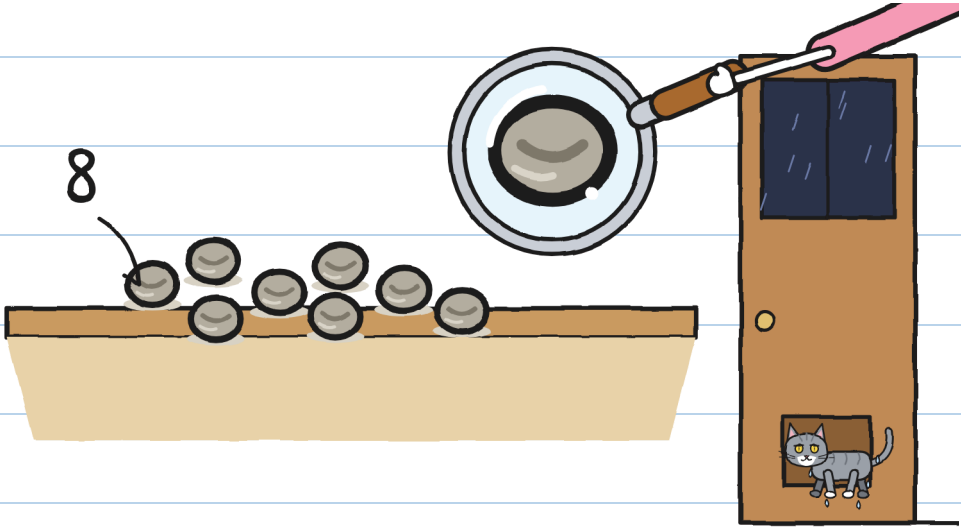
그리고 훌리타가 병을 열었다.



"천둥이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은 안 쳤다.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친 거였다. 천둥은 고양이다.

천둥! 소리를 들었어. 고양이었네. —J.

병이 조용해졌다. 안에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 차갑고 가만히 있었다.
"줄이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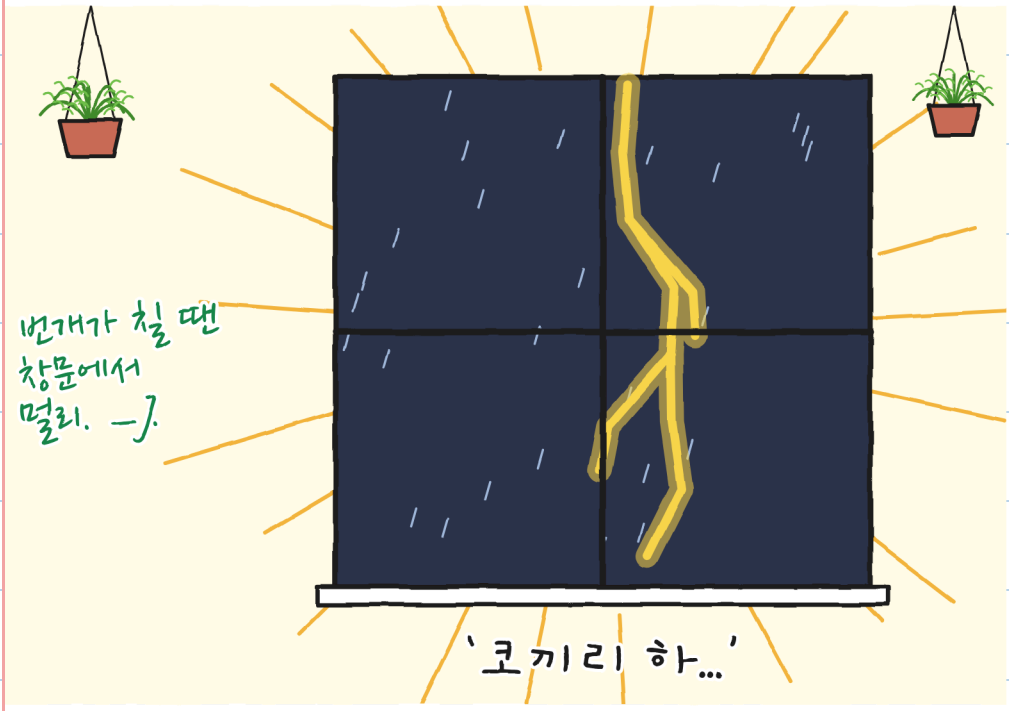
천둥이 흠뻑 젖어 돌아왔다.
"돌멩이네. 늘 그렇듯이."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훌리타의 얼굴이 빨개졌다.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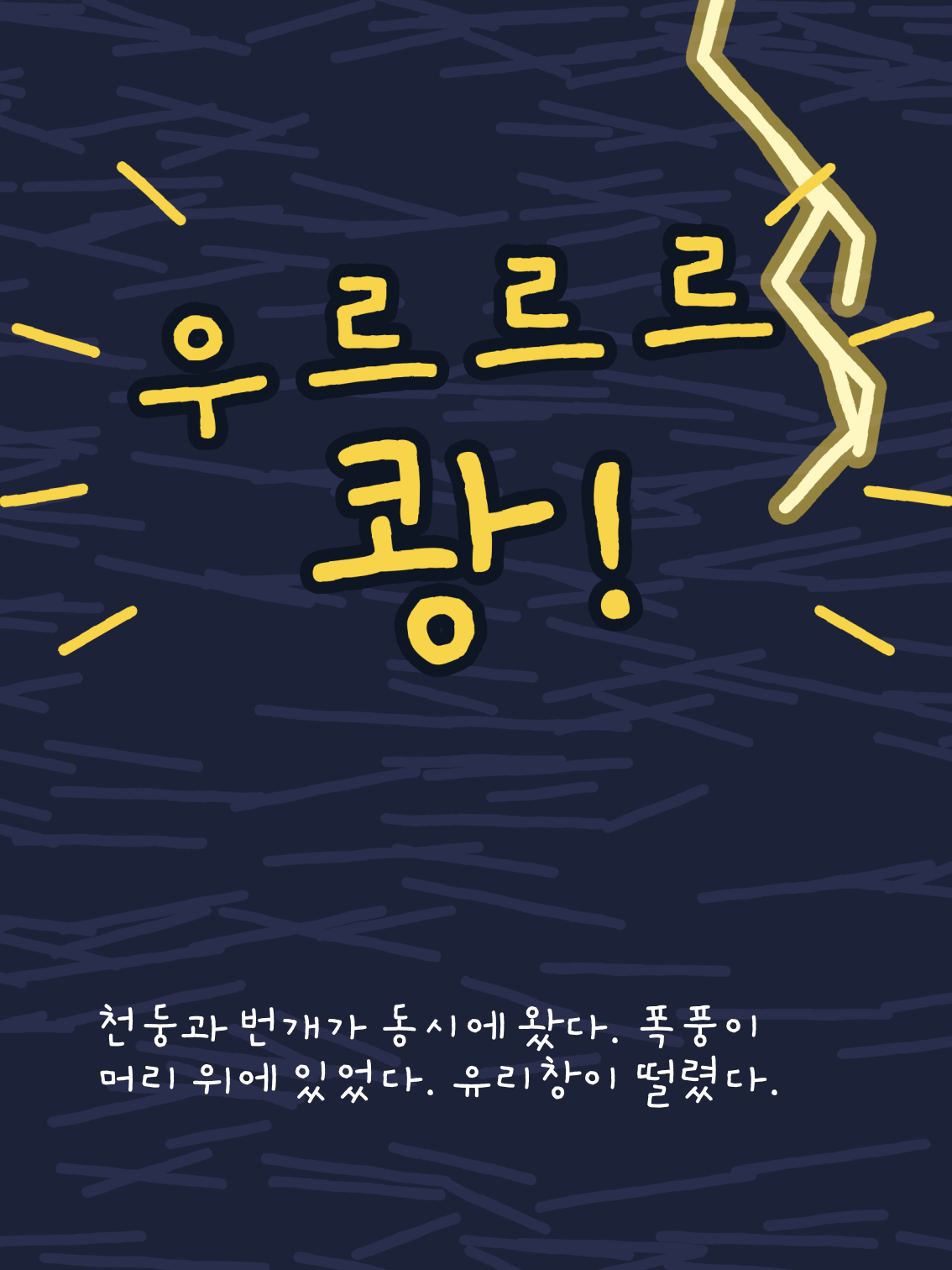
내가 말했다. "자고 있어요."

"증명해 보라지."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6시였다. 번개. 훌리타가 세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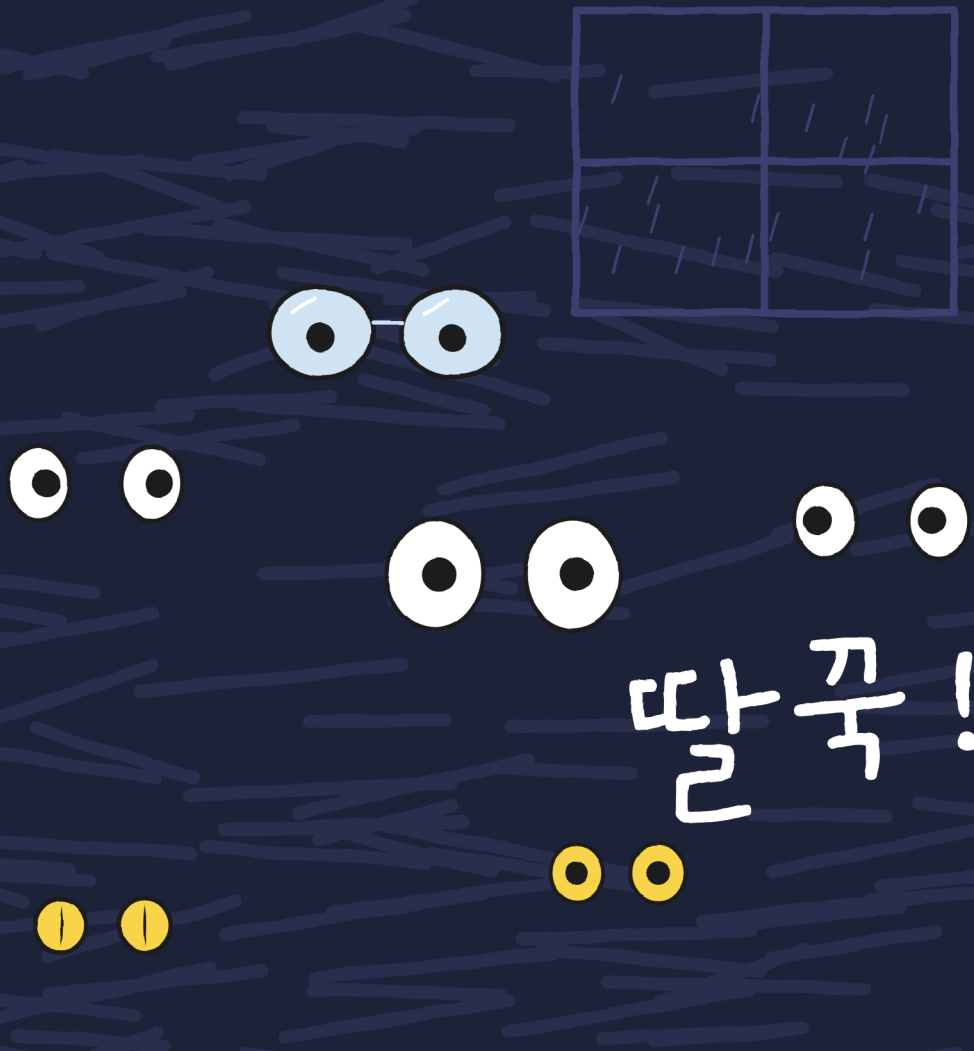


그리고 진짜가 왔다.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왔다. 폭풍이
머리 위에 있었다. 유리창이 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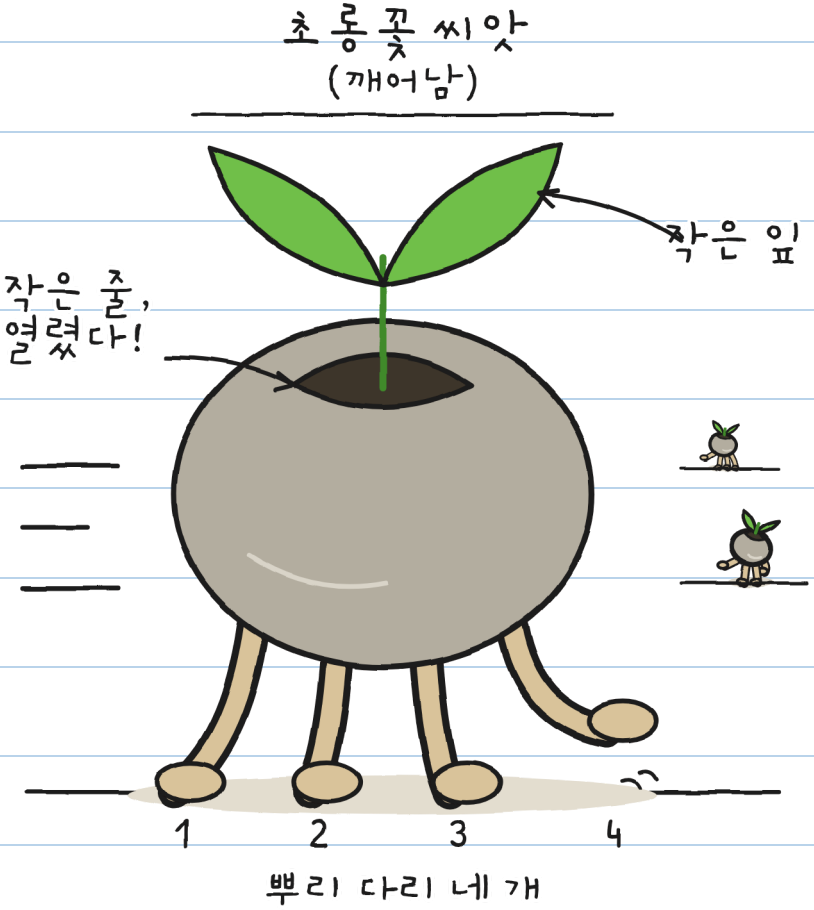
그리고 불이 나갔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했다. 불꽃이 확!

식탁이 비어 있었다.





돌멩이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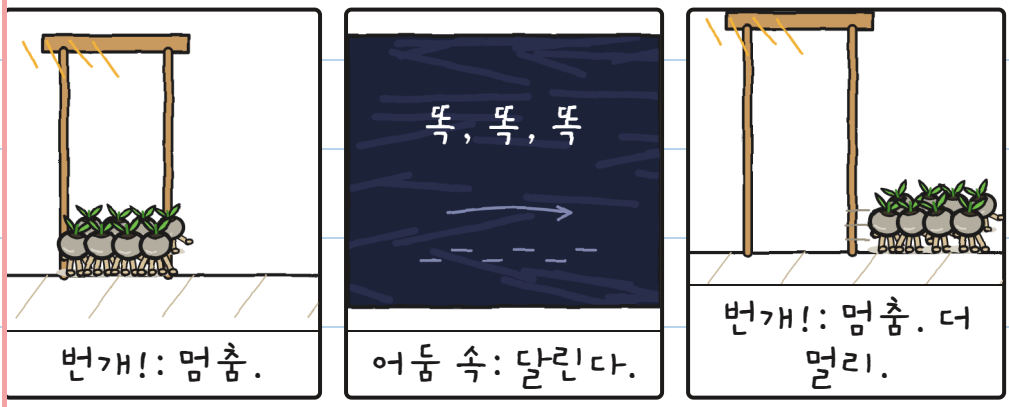
그리고 조급함. -J.

제3장

안 보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씨앗들은 달렸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멈췄다. 나는 체를 썼다.



씨앗들과 복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J.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으로
씨앗 하나를 비추었다.
씨앗이 멈췄다.
"씨앗이야! 깨어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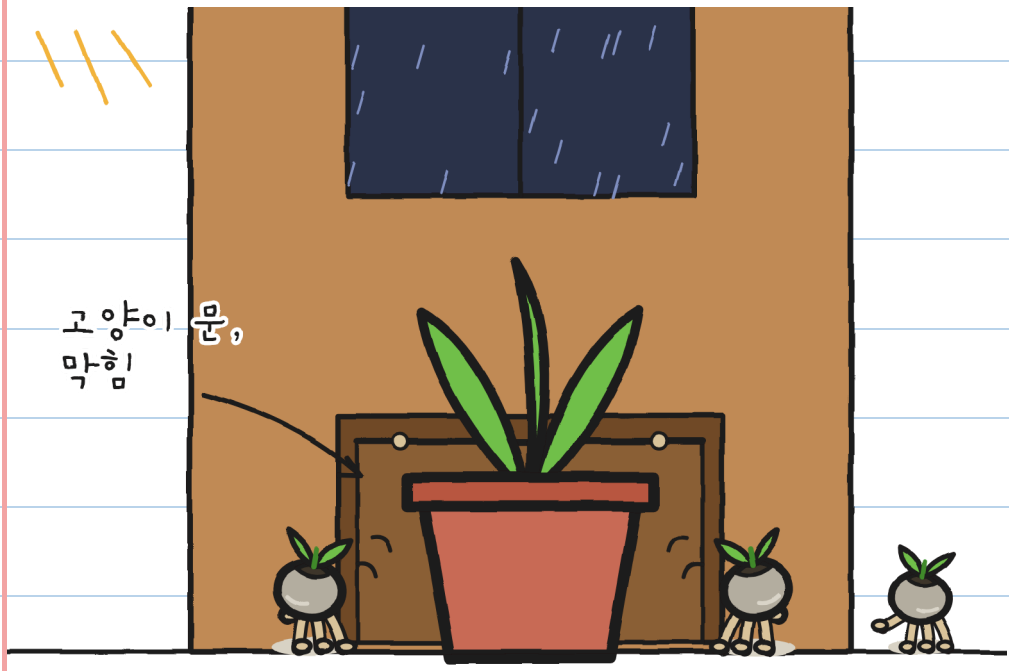


불빛이 움직였다. 두 번째 씨앗이 달렸다.
불빛이 있으면 가만히. 없으면
달린다. 손전등 하나로는 모자랐다.

씨앗은 모두 고양이 문으로 갔다.

플로라아줌마가화분으로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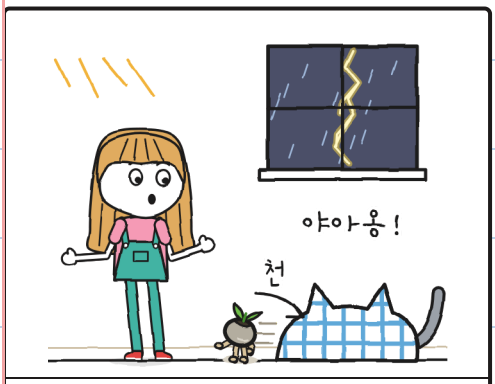
"폭풍에 젖은 흙을 찾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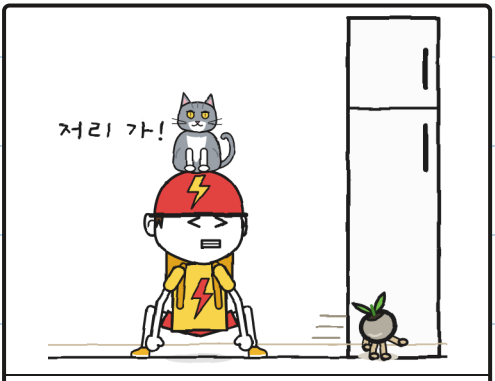
이제 씨앗들은 어둠 속에서

부엌 곳곳에 있었다.

우리는 별걸 다 해봤다:



훌리타: 천둥을 잡았다.



토쇼: 천둥이 잡았다.



부스러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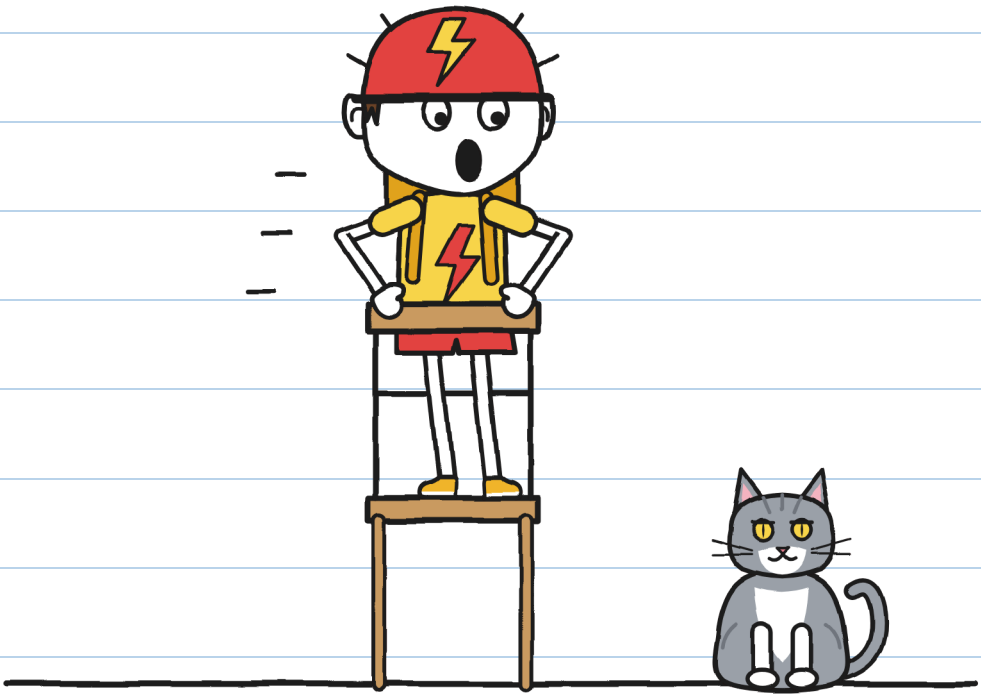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 둘!

천둥도 씨앗을 잡으러 다녔다.

천둥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인다.

토뇨는 고양이가 무섭다.



"천둥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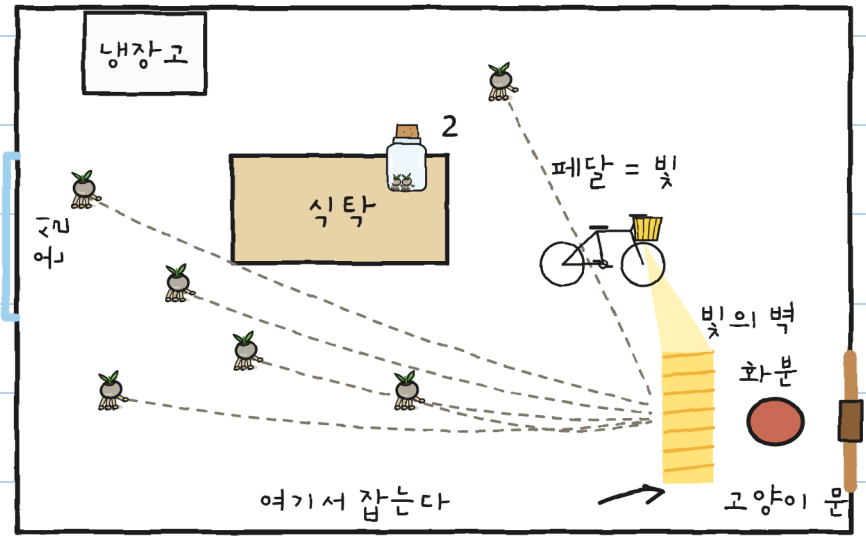
"더 나빠!" 토뇨가 소리쳤다.

무서운 건물, 이름하나. —J.

식탁 밑에서 한 가지를 보았다.

씨앗들은 늘 고양이 문으로 돌아갔다.

나는 약도를 그렸다.



"토요, 네 전조등은

페달을 밟으면 켜지니?"

"당연하지."

"오늘은 빛을 배달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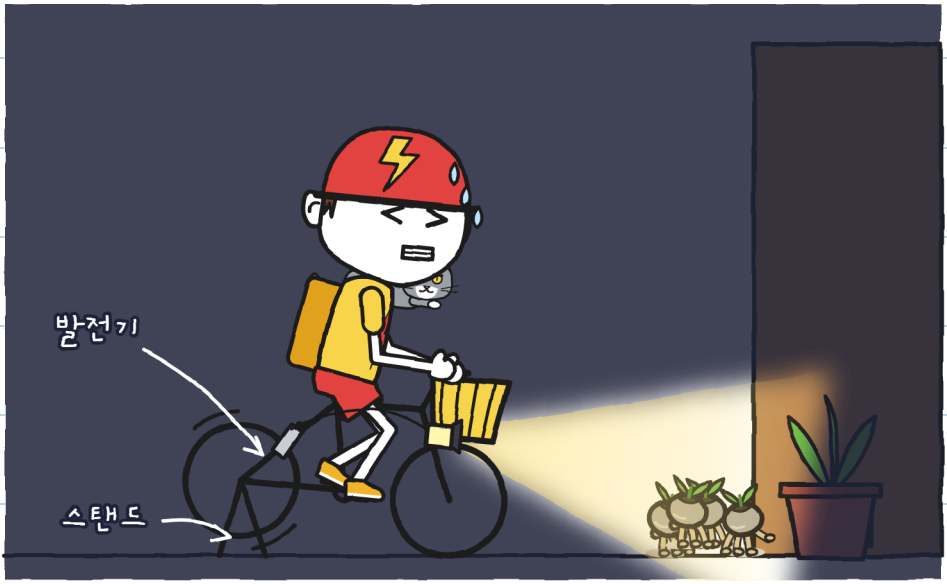
우리는 자전거를 세웠다.

전조등이 고양이 문을 비췄다.

그리고 토뇨가 페달을 밟았다.

토뇨는 열심히 밟았다.

천둥이 위로 뛰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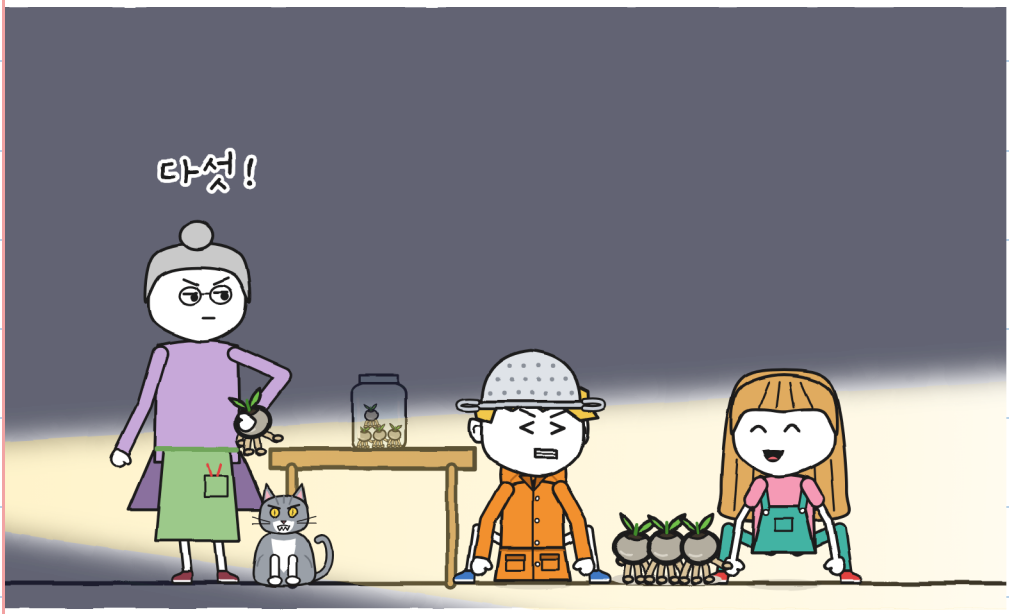
번개배송이 쓸모 있네. —J.

씨앗들은 빛에서 멈췄다.

우리가 잡았다: 셋, 넷.

천둥이 입으로 씨앗을 물었다.

"다섯!"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여섯.

플로라 아줌마가 뚜껑을 닫았다. 천둥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병을 쓰러뜨렸다.



토뇨가 병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하지만 페달을 멈췄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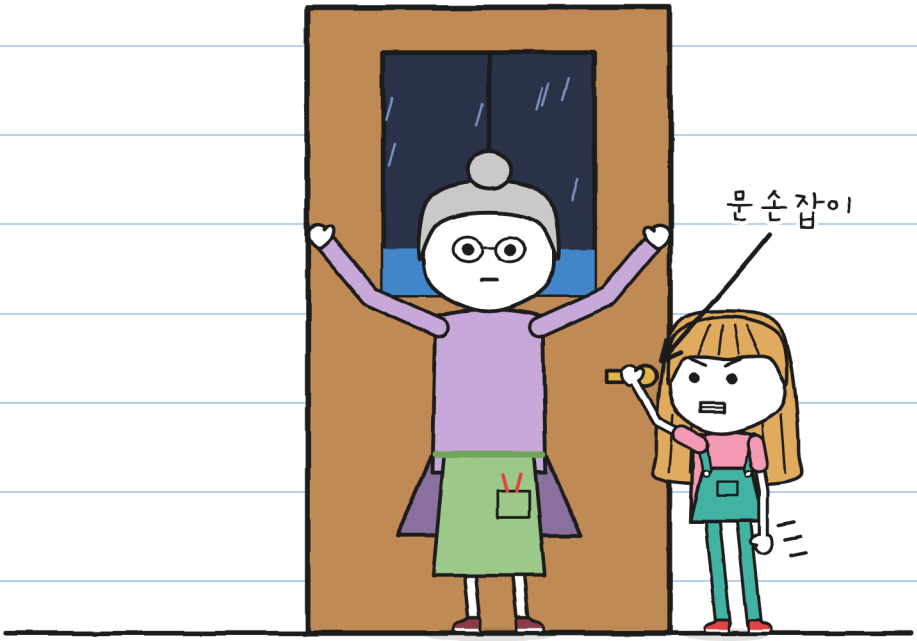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여덟 번째 씨앗은 고양이 문으로 나갔다.

"제가 찾아올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번개가 칠 때는 아무도 못
나가."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훌리타는 문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여덟
번째 씨앗 없이 천둥이 돌아왔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우르릉.

"아주 가까워." 훌리타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심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저 안에서요?" 훌리타가 물었다.

"번개는 밖에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부스러기를 쳐다보았다.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딸꾹질을 했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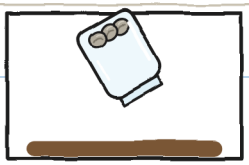
딸꾹

초롱꽃은 이렇게 심는다:

초롱꽃 심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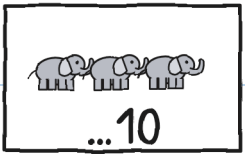
   폭풍에 젖은 흙.
   (수돗물 흙은 안 돼.)

2. 

   병 열기.
   (그전엔 도망간다.)

3. 

   전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심어진다.
   (네가 묻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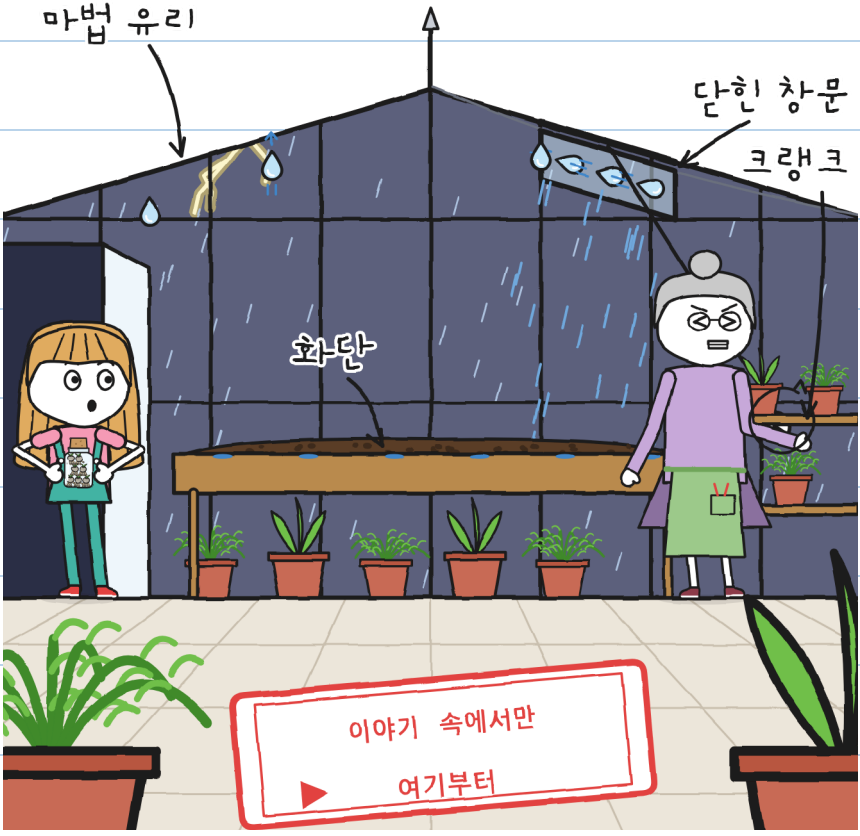
4. 

   지나가기 전에:
   열 마리가 넘으면,
   심어지지 않는다.

플로라 아줌마가 크랭크를 돌렸다.

그러 놓은 빗방울들이 내려왔다.

진짜 비가 화단에 떨어졌다.



진짜 폭풍: 온실은 절대 안 돼. —J.

"전부 어둠 속에서."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부스러기는 벌써

안에, 화단 아래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끌어당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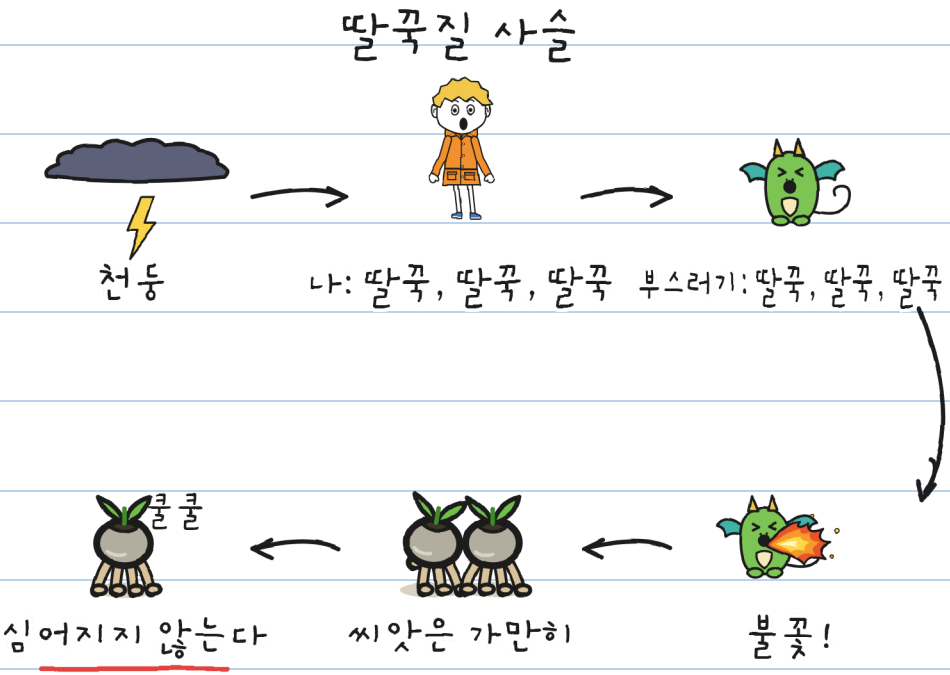
부스러기는 화분을 꽉 붙잡았다.



내가 딸꾹질을 하면

부스러기가 불을 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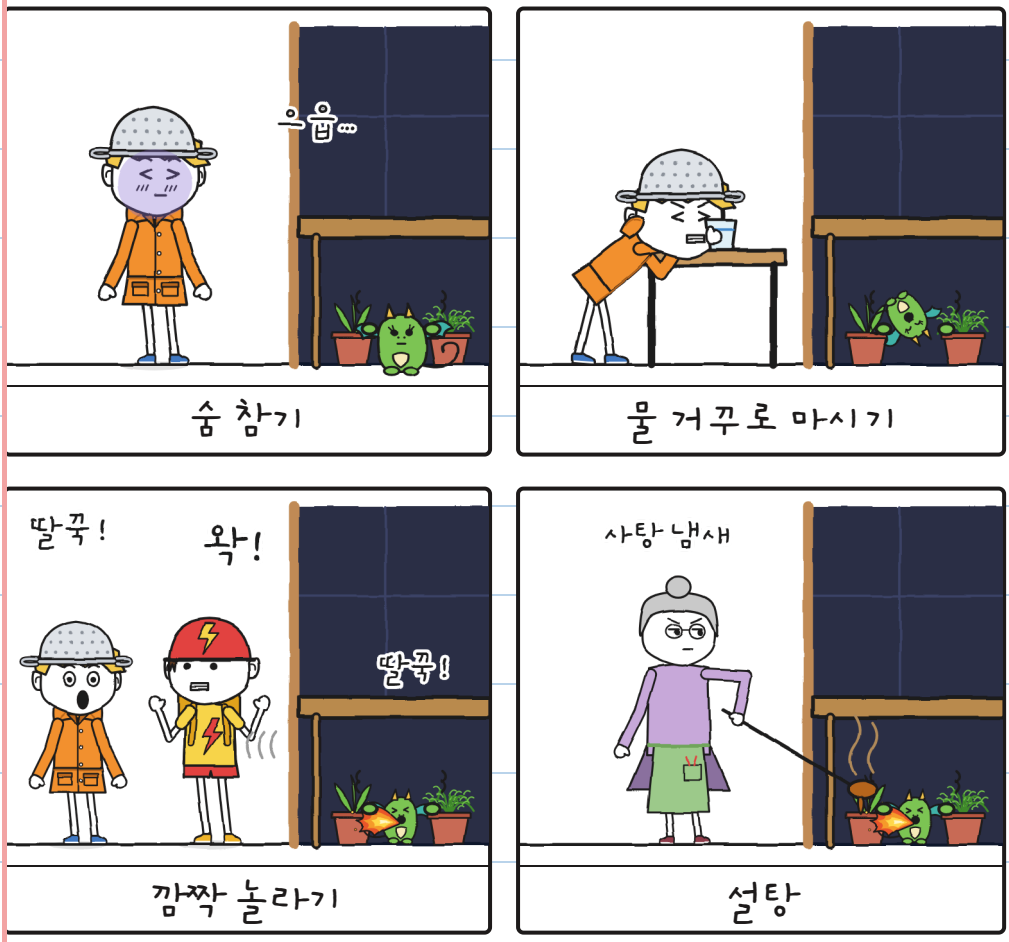
이해하려고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부엌에서는 딸꾹질이 도움이 됐다. 온실에서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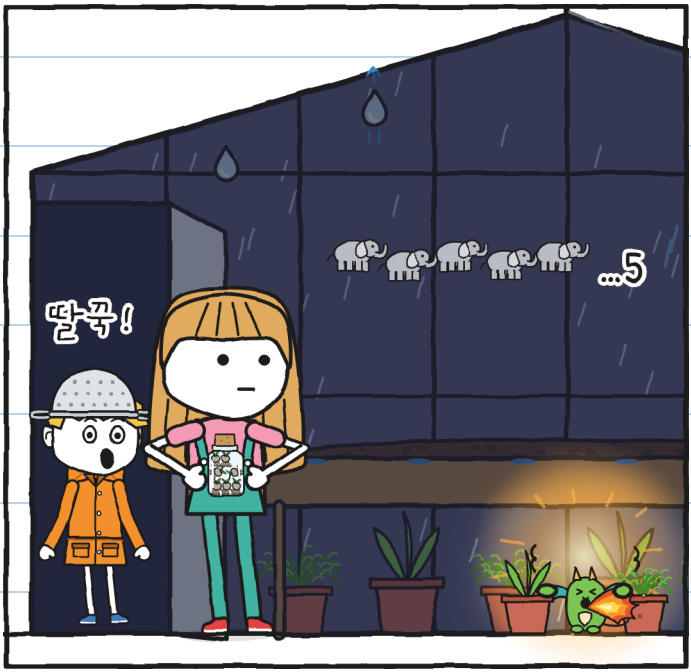
사슬을 끊어야 해. —J.

딸꾹질 멈추는 방법을 해봤다:



방법: 0개. 딸꾹질: 많이. —J.

"코끼리 넷, 다섯." 훌리타가
셌다. 우르릉. 더 먼 곳에 쳤다.
씨앗 일곱 개가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열하나까지 세면 어떡해?" 내가 물었다.
"또 돌멩이가 되겠지." 훌리타가 말했다.

"부스러기는 네 무서움을
따라해." 훌리타가 말했다.
"부스러기 곁에 있어줘."
내 계획은 더는 통하지 않았다:

무서움을
숨기는 내 계획:

1.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기.
2. ~~딸꾹질 안 하기~~ 딸꾹 딸꾹 딸꾹 딸꾹 딸꾹
3. ???

3번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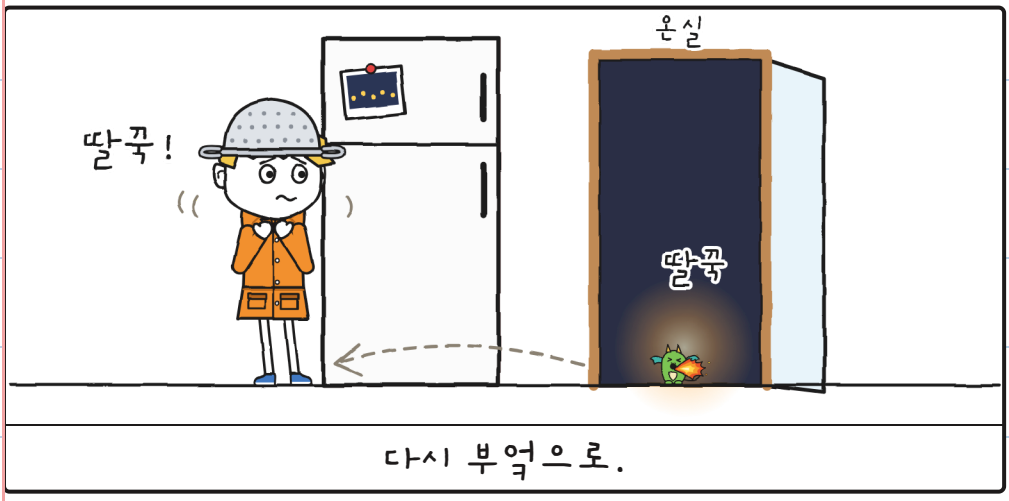
나는 해 보았다. 정말로.



한 발 안으로.



천둥 한 번.



다시 부엌으로.

온실에서는 천둥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유리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베라

아줌마의 용들이 폭풍 속을 날고 있었다.



용들은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가자, 사냥꾼." 토뇨가 말했다.

농담을 기다렸다.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체를 플로라 아줌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무서움은 막아 줘. —J.

안에서는 빗소리가 컸다.

나는 화단 밑으로 들어갔다.

부스러기는 나처럼 떨고 있었다.



우르릉!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했다.

우리는 폭풍 사냥꾼 둘이었다.

문가에서 훌리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같이 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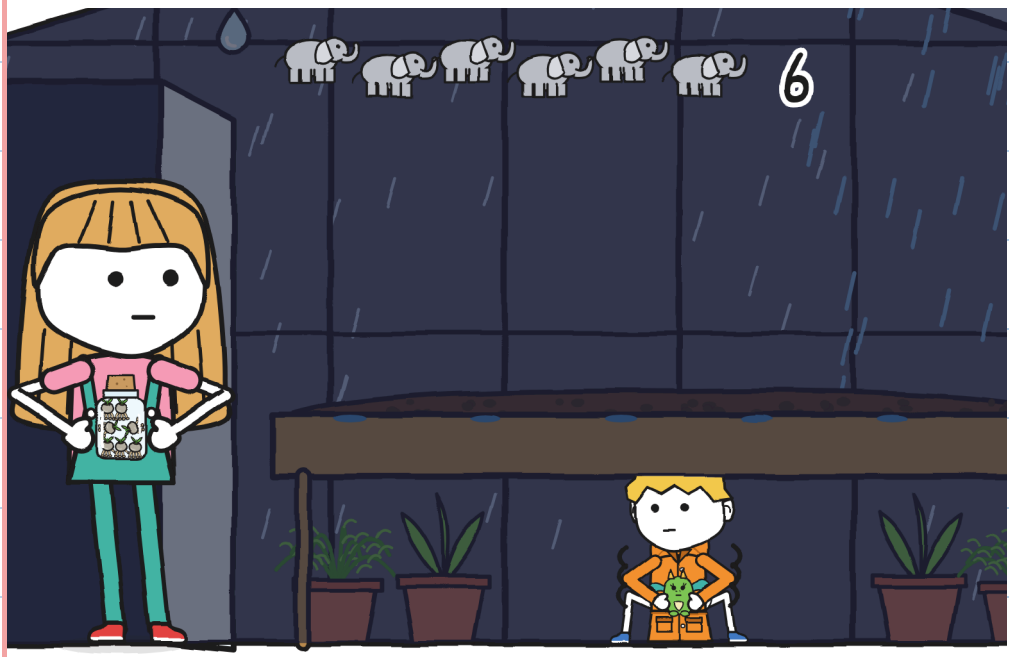
제5장

내가 같이 셀게

그리고 우리는 셌다.

"코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르릉. 더 먼 곳에 쳤다.



코끼리 여섯 마리를 셌다.

무서움은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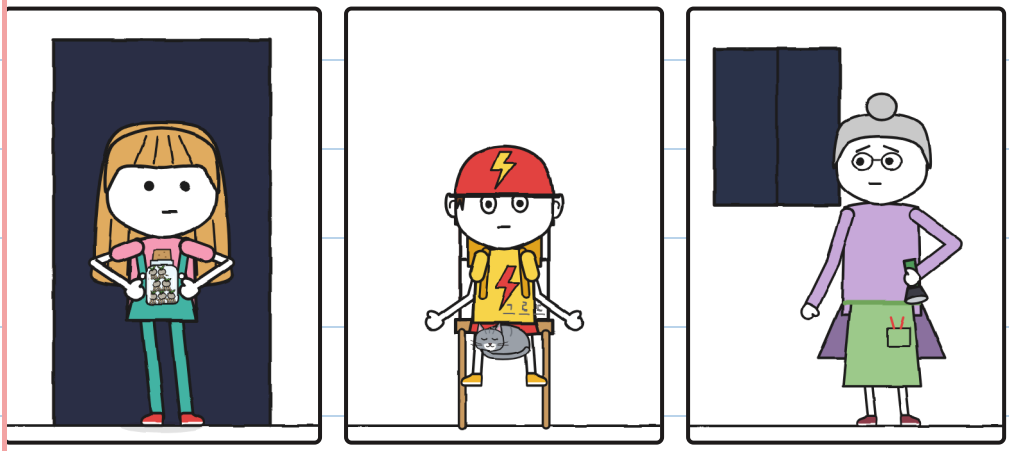
나는 사실대로 말해 보았다.



"난 천둥이 무서워."

"알고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6쪽에 그려 놨잖아."

"난 고양이가 무서워." 토뇨가 말했다.
"난 기다리는 게 무섭단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난 널다리가 무서워. —J.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우리는 아홉까지 셌다. 나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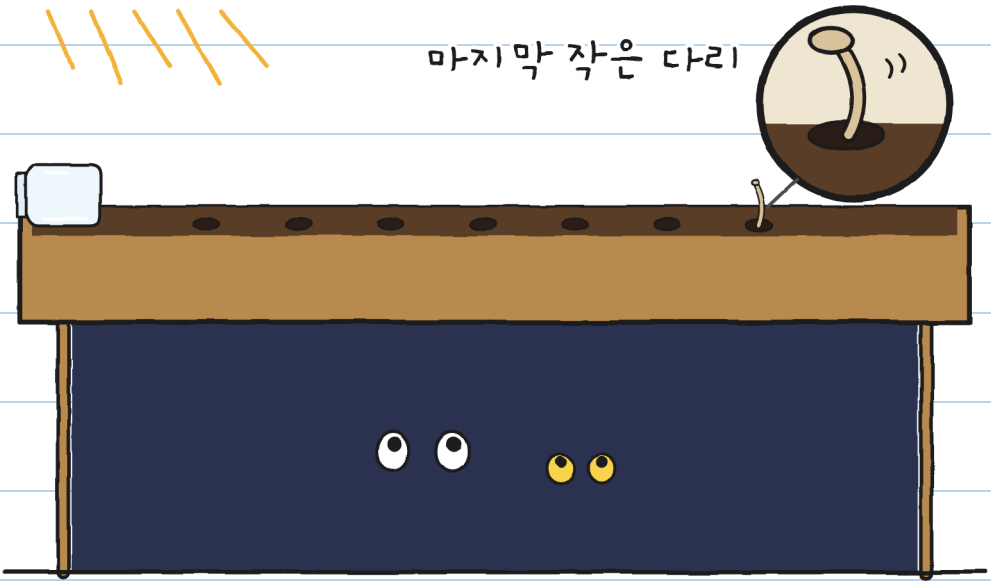
"지금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속삭였다.
훌리타는 발끝으로 걸어
들어갔다. 열린 병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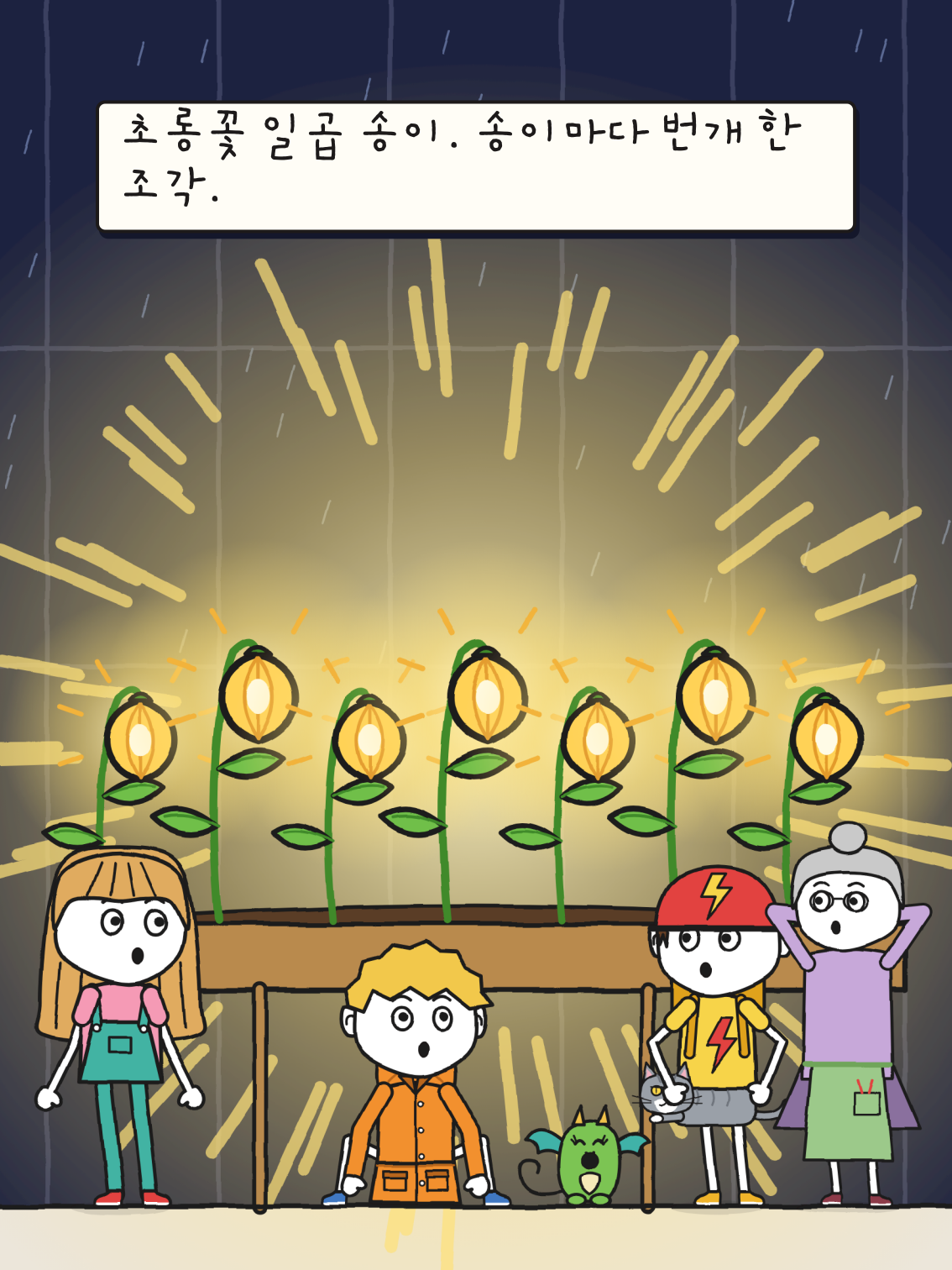
똑, 똑, 똑. 병에서 뭔가 나왔다.

열까지 셌다. 우르릉.

그리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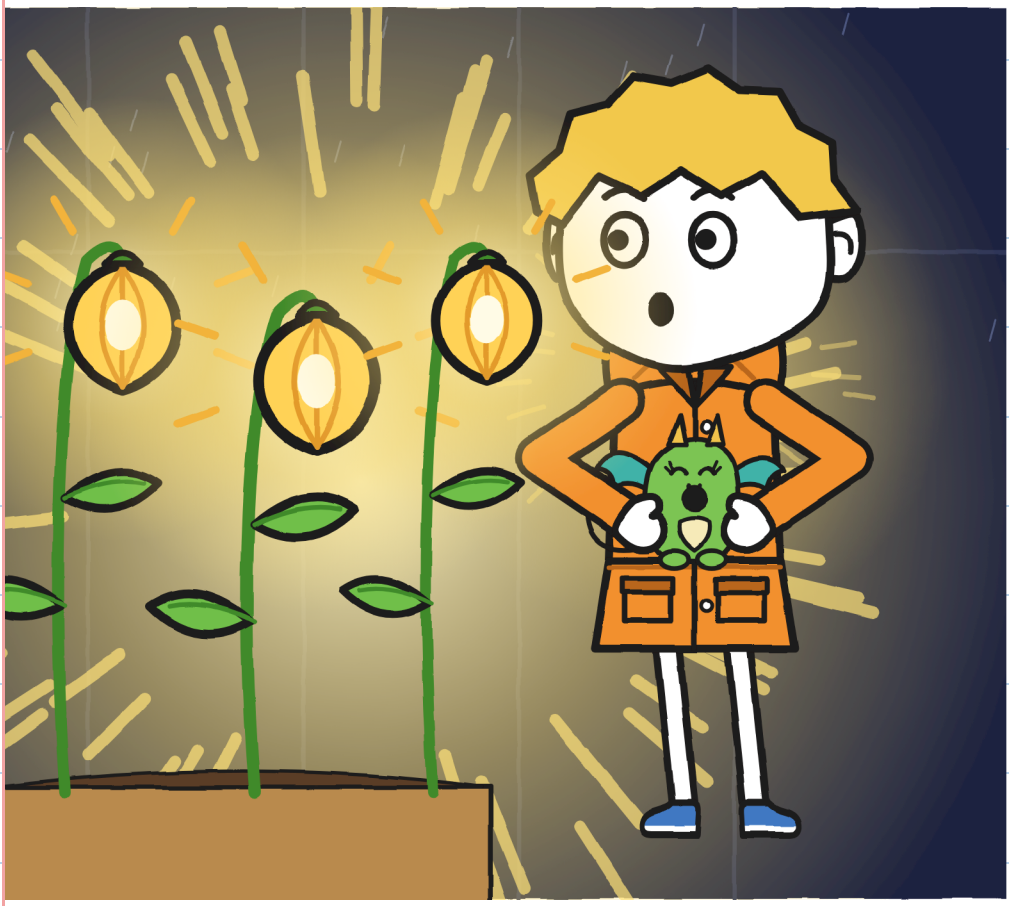


병은 비어 있었다. 흙에
작은 구멍이 일곱 개.
그리고 첫 번째 초롱꽃에 불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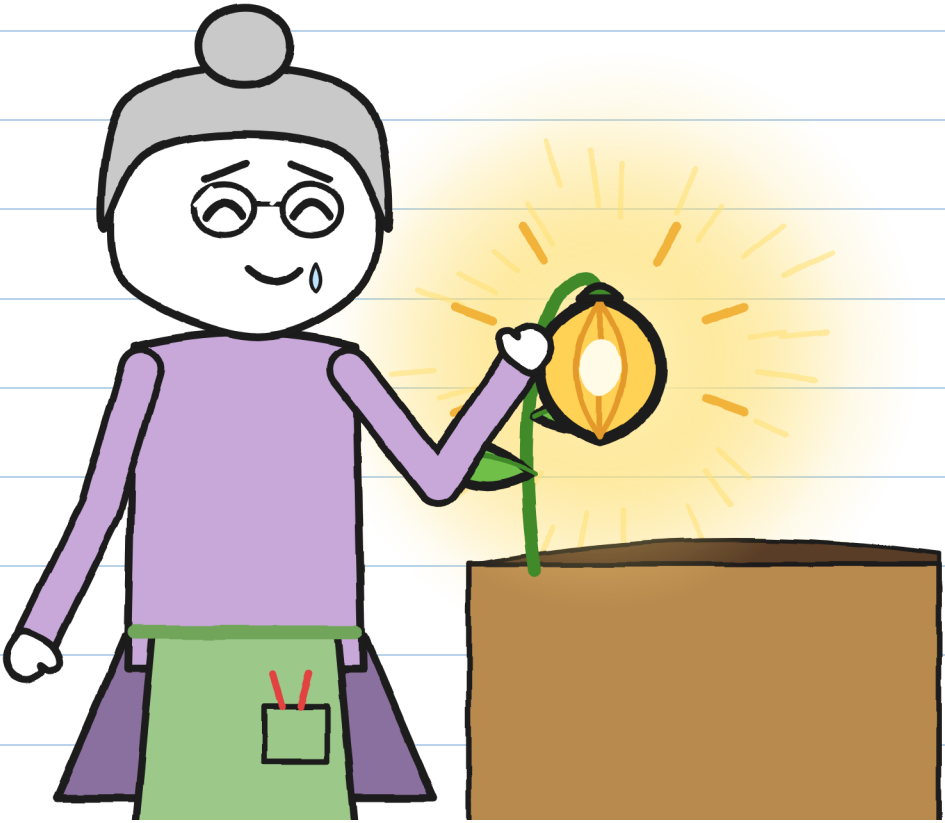

초롱꽃 일곱 송이. 송이마다 번개 한 조각.

부스러기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나처럼 초롱꽃을 바라보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초롱꽃을
손끝으로 만졌다.
"산책로가 이랬단다." 아줌마가 말했다.



나도 만져 보았다. 미지근하게 따뜻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볼펜을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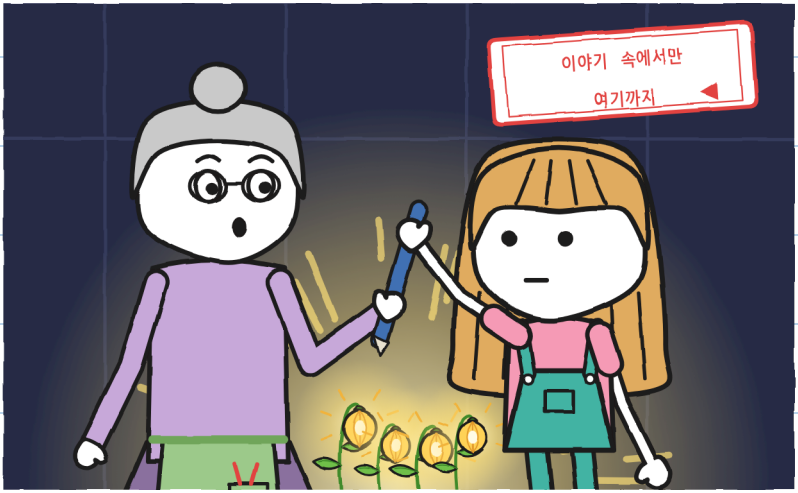
드디어 서명하려는 참이었다.

훌리타가 막았다.

"아직이에요.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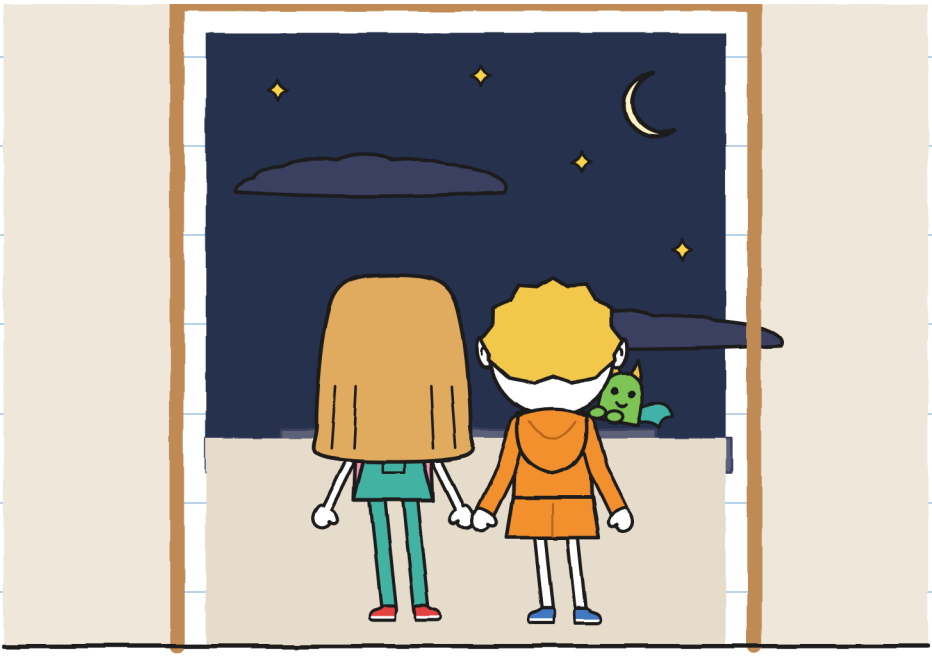
모자라요." 훌리타가 말했다.

그러고는 라벨을 떼어 냈다.



끝까지 못 하면 배달이 아니야. —J.

마지막 천둥이 친 뒤로 30분을
기다렸다. 이제 비는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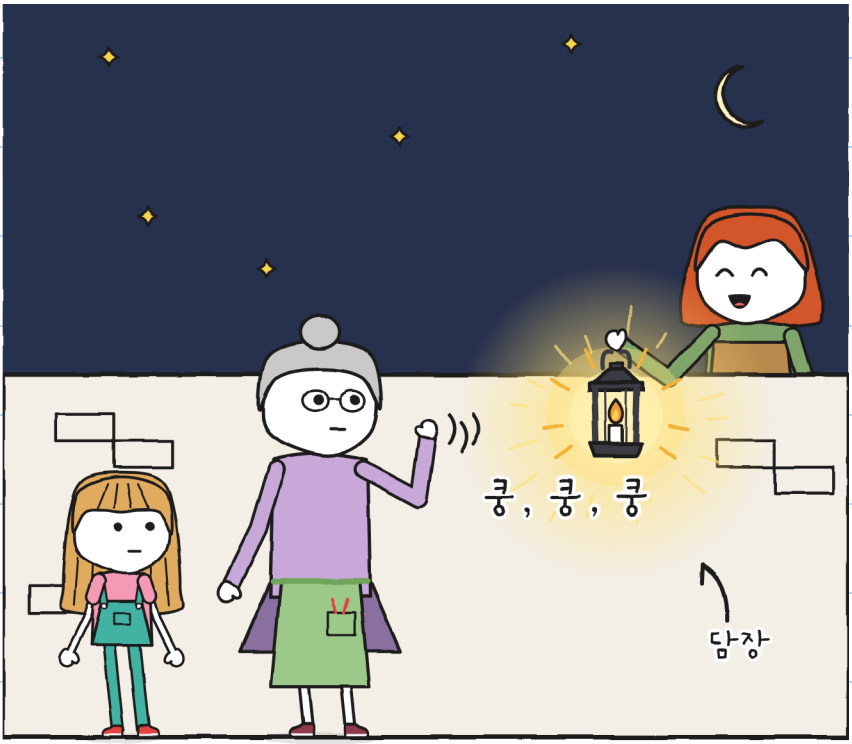


여덟 번째 씨앗은 아직
밖, 어둠 속에 있었다.
서명이 없으면 2번 택배는
해 뜰 때 돌아간다.

"찾으러 가요." 훌리타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담장을 세 번 두드렸다.

베라 아줌마를 부르는 거였다.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가 말했다.

제6장

여덟 번째

우리는 플로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와 함께 나갔다. 나는
부스러기를 비옷 안에 넣었다.
우리는 마당과 운하를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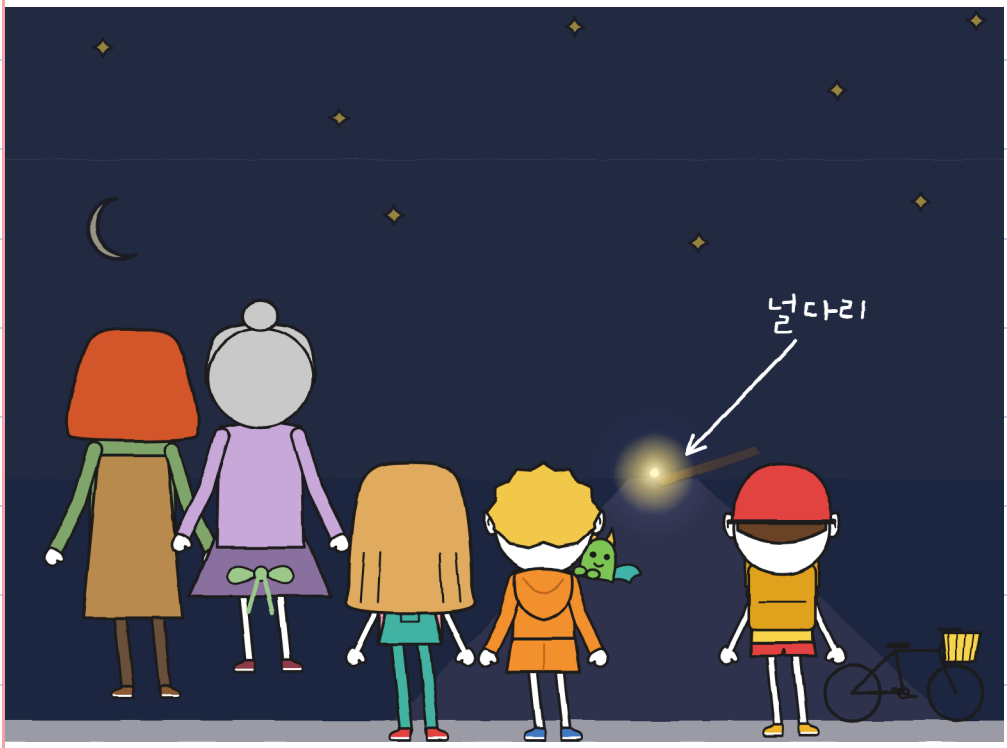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돌멩이일 수도 있었다.

작은 초롱꽃은 불빛이 있으면 안 보인다.

"불을 꺼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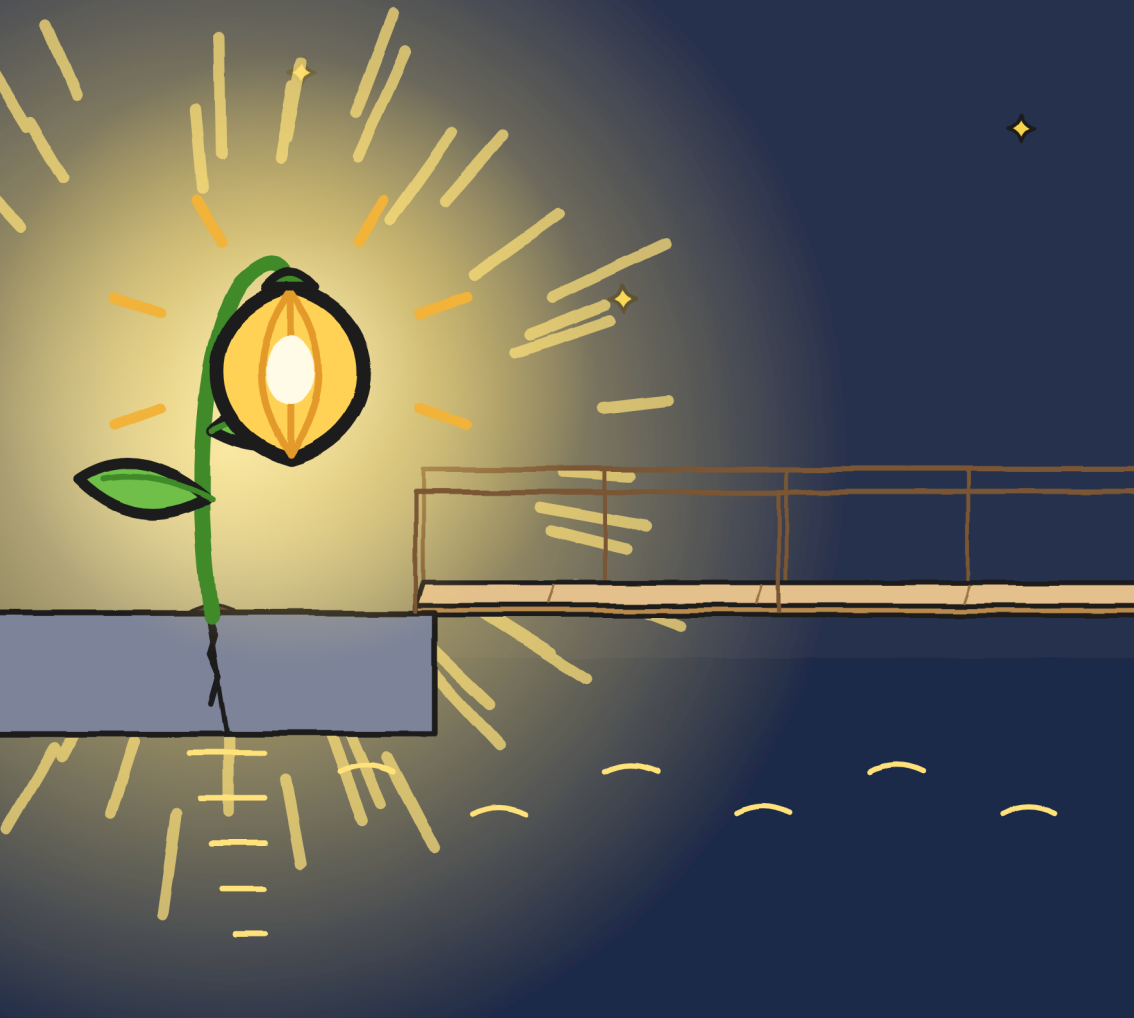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저 끝에 작은 불빛이 있었다.



널다리 끝자락에.

빗물이 씨앗을 좁은 길을 따라
산책로까지 쓸고 갔다. 씨앗은 널다리
끝자락에서 혼자 심어졌다. 멀리서는
작은 불빛, 가까이서는 모든 걸
환하게 비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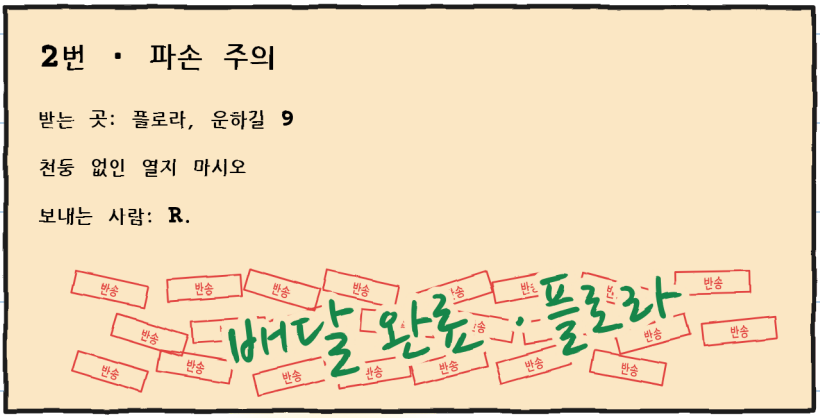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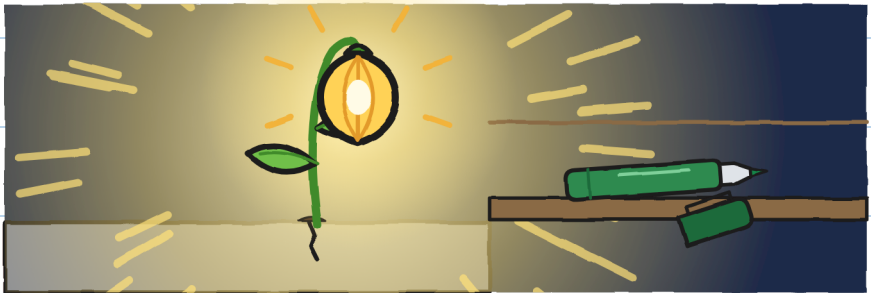
훌리타는 널다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있으니 달라 보였다.
훌리타는 널다리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뺐다.



이제 거의 안 무서워. —J.

"이건 여기 있게 하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아줌마는 초록색 잉크로 서명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나에게 체를 주었다. "다음 폭풍 때 쓰렴." 아줌마가 말했다.

베라 아줌마가 승합차로 우리를
가게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러고는 용들에게 돌아갔다.
가게는 깜깜했다. 마라 아줌마가 없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 있었다.



"벌써 지나갔어?"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담요. 귀마개. 헬멧 대신 쓴 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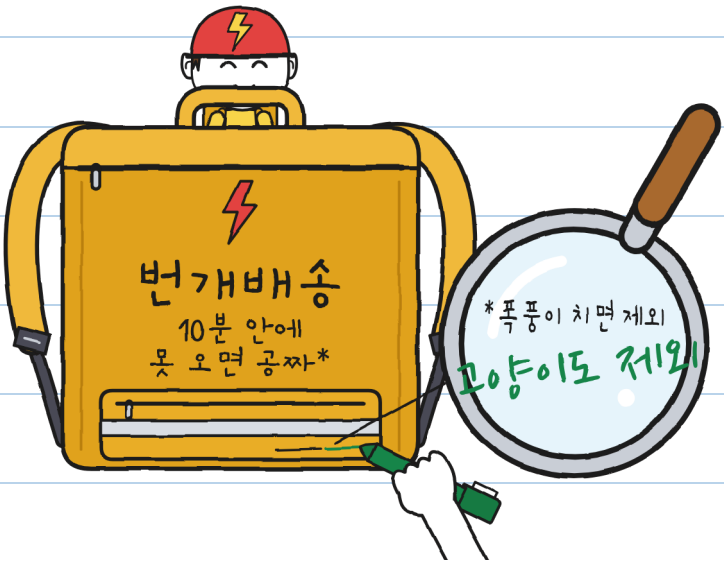
"저도 천둥이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담요를 들어 올렸다.



나는 아줌마 옆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마라아줌마가 토뇨에게
상자를 놓아 주었다.
"네 자리야."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토뇨는 가방에 '고양이도
제외'라고 적었다.



이제 진실을 말하네. —J.

천둥에 대한 계획을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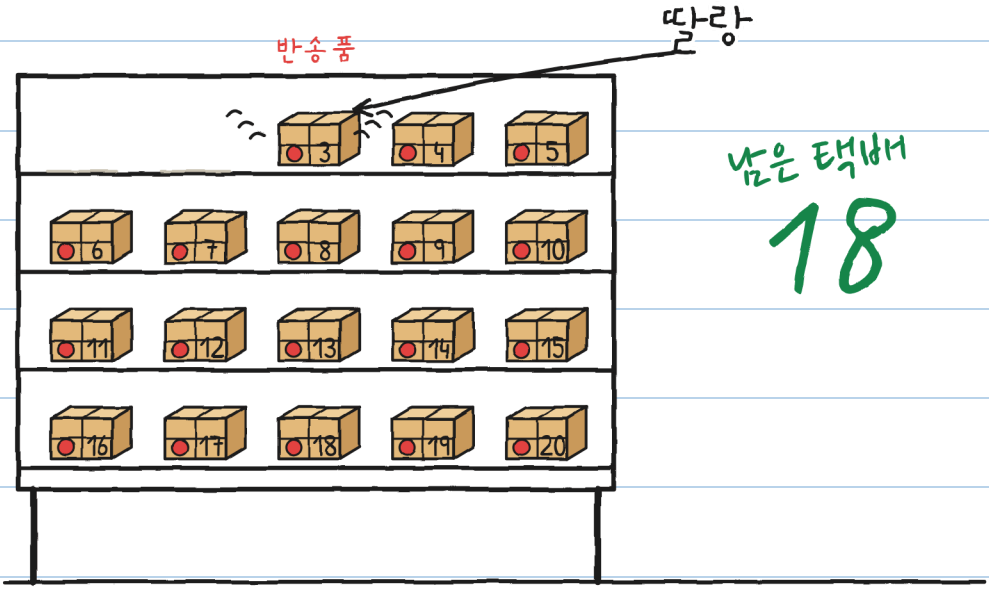
1. 코끼리 세기.
2. 누군가와 함께.
3. 딸꾹질 : 괜찮다.

남은 택배

7918



사냥꾼이라고 하지 마.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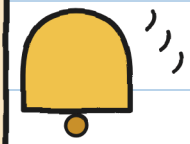
남은 택배

18

돌아온 택배 하나가 딸랑 울렸다.

3번

우리 토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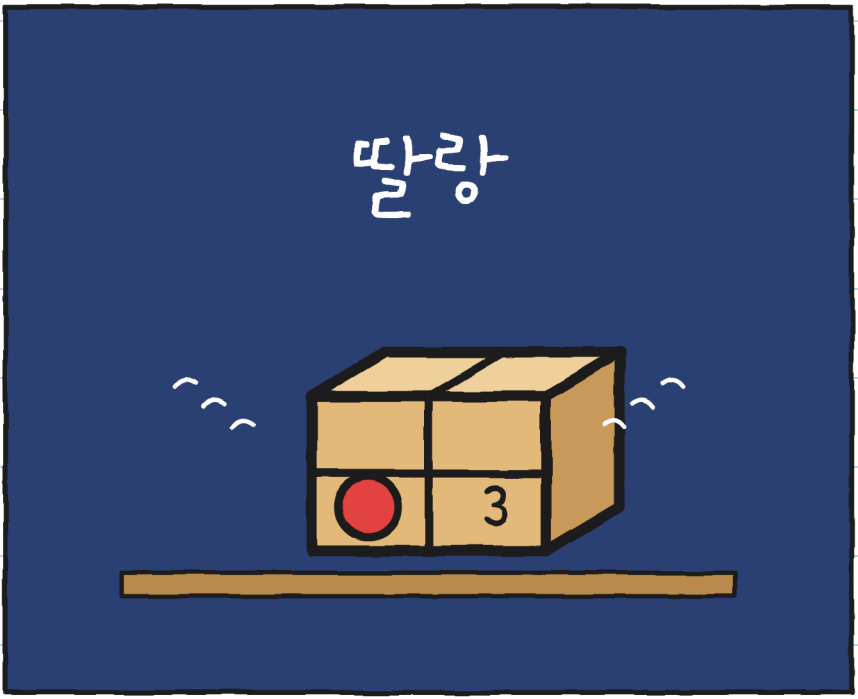


토뇨의 얼굴이 빨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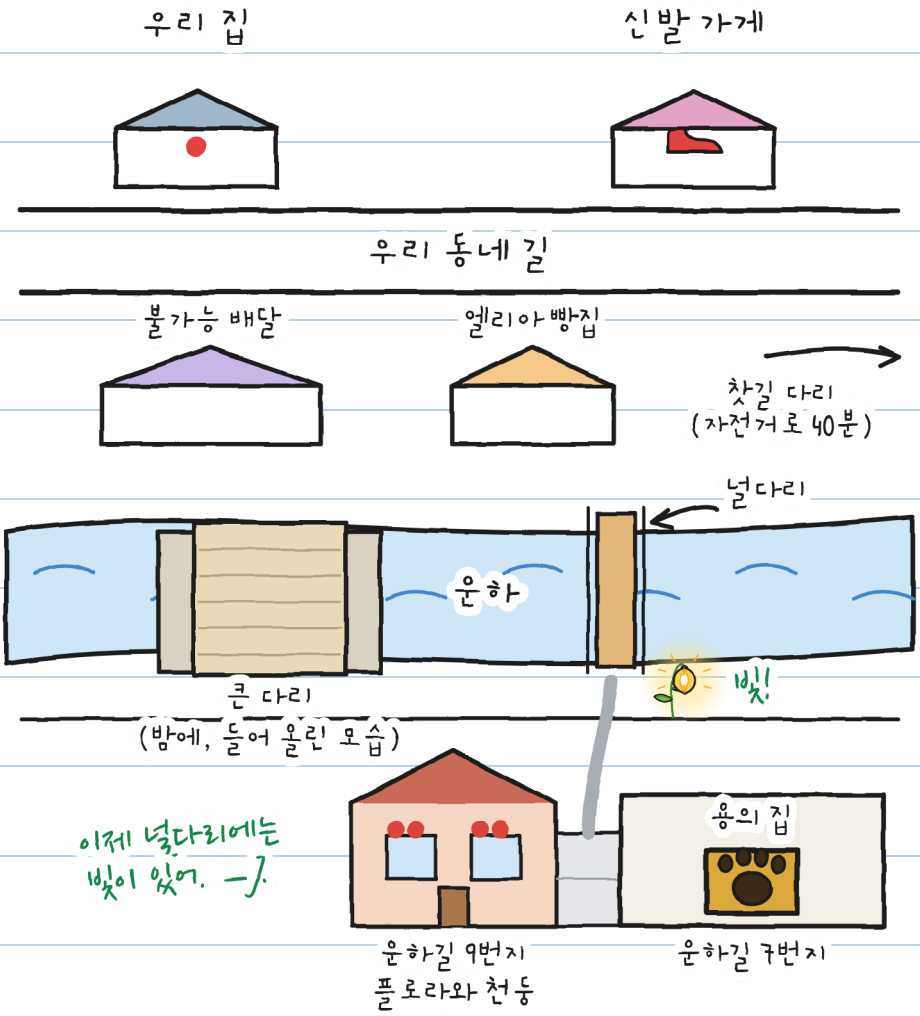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곧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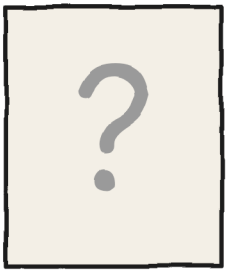


누가 토뇨에게 택배를 보내지? —J.

동네 (두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빛!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이제 널다리에는
빛이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R.에 대해



R.

1. 글씨를 못 쓴다(마라).
2. 베라 아줌마의 얼굴이 하얘졌다.
3. 플로라 아줌마와 초롱꽃을 심었다.
4. 늦게라도 약속은 지킨다.
5. 마법 유리를 만들었다.

6.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J.

너는 어떻게 생각해? R.이 누구일 것 같아?

내 생각에 R.은...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여섯 가지 사이즈, 20개 넘는 언어.

사이즈 XXS · PRE-A1
홀리타가 일곱 번째 씨앗을 잡아.

사이즈 XS · A1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S · A2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M · B1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L · B2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 폭풍이 칠 때 해야 할 일

1.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번개가 벌써 너에게 닿을 수 있어.
2. 어른과 함께 집 안에 있어. 창문, 문,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온실도, 다리도, 나무도, 물도 안돼.
3.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가지 마.
4. 코끼리를 세면 번개가 가까운 곳에 쳤는지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 하지만 언제 나가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네 폭풍을 세어 봐

집에서 코끼리를 세어 봐.

번개	코끼리	킬로미터 (3마리에 1)	더 가까울까, 더 멀까?
1	15	5	–
2	9	3	더 가까이